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농촌유학생들, 도내 학교로 첫 등교

전주매일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음 9월 10일) 제31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중

산업·시민재해 예방 위한 안전 확보의무 등
전북도, 전국 최초로… 6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이달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거쳐 공포 예정

전북도가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든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이후 신규담당자의 빠른 업무이해를 위해 설명회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전 세계 호남인들, 3년만에 한자리에'

'2022 세계호남인의 날' 전북도, 기념행사 주관
세계 호남향우회원 참석 오늘까지 2박 3일 진행
고향사랑 장학금 기탁 지역별 현안 청취

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달범 세계호남향우회장을 비롯한 호남출신 재외동포들이 기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호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하는 행사가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세계 호남향우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2022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호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인사회와 고향을 위해 다른 누구보다도 진심인 재외 호남인의 마음을 항상 기억한다"며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에 적극 손을 내밀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우회원들은 전북을 비롯 전남, 광주를 순회 각자의 고향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랜만에 고향의 정취를 만끽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회원들은 3일부터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황토현 전적지 방문, 진안 마이산, 임실치즈테마파크, 국립 무형유산원 등을 둘러보며 전라북도의 문화를 소개받았다.

전북도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아태마스터스와 새만금, 고향사랑 기부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또 한인사회와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임수자 독일 베를린 세계호남향우회 부회장 등 6명이 '자랑스러운 호남인 상'을 수상했다.

향우회에서는 전북, 전남, 광주지역 청소년 84명에게 고향사랑 장학금을 수여했다.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2017년부터 매년 호남지역 우수청소년에게 고향사랑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28명에게 2억1,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한편 세계 호남향우회(회장 김달범)는 26개국 69개 지회 200여만명의 호남 출신 재외동포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창설 이후 10월 4일을 호남인의 날로 정하고 매년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세계호남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해외한인사회의 발전과 호남 지역에 대한 기여활동을 위해 창립된 세계 호남향우회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해외 초청 사업 등 고향의 크고 작은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수해복구 성금 1억원을 3일이라는 단시간에 모금하여 기탁하는 등 고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우애·나눔·보은·행운'… 남원 흥부제, 7~9일 개최

남원시 사랑의광장 일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추진
흥부樂놀부樂 한마당
품바 명인전 등 준비돼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을 상징하는 제30회 흥부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제30회 흥부제는 코로나 19라는 아픔을 넘어 흥(興)이 가득한(富) 축제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흥부(興富)가 돌아왔다'라는 테마로, 기념행사를 비롯 공연 및 경연, 체험,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20개 종목의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연계행사 등으로 구성, 꾸며진다.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인기가수 거미, 부활, 홍진영, 김범룡, 서문탁, 최정원과 양상블, 박서진, 김찬호 등이 출연하고,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는 △관객 참여 공연으로 구성된 흥부樂놀부樂 한마당 △지역 예술단체, 동호회 등이 선보이는 흥부골 스타 탄생 등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의 흥을 더해 줄 △흥부품바 명인전 △판소리 열전-흥부를 만나다' 등과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사랑의 광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흥부놀이터와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흥부와 놀부가 되어 펼치는 참여형 대회 대결 흥부놀부 명랑운동회 △흥부복장으로 추억을 찍는 흥부네 사진관 △떡메치고 무료로 떡을 시식하는 흥부네 잔칫날 떡메치기 △행운을 드려요 흥부박 터뜨리기 등 흥부제만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우애와 나눔 정신을 형상화한 흥부네 가족 비빔밥 나눔 행사에서는 700인분의 비빔밥을 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 나누며 흥부제의 기본 정신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하고 가족 간의 화목과 이웃과의 정을 장려하기 위한 '흥부가족상'도 수여한다.

이외에도 △흥부골 남원 농악경연대회 △제30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남원에서 녹화하는 전국노래자랑 △행운과 건강을 챙기는 △흥부를 찾아라 △덕음산 가족사랑걷기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백일장·그림그리기·독후감대회가 개최된다.

최경식 시장은 "올해 흥부제는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다양한 공연, 풍성한 체험거리로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기간 동안 남원과 흥부를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 임업직불제 이달 첫 시행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 직접 지불제도'가 이달부터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자원 관리, 산지의 형상, 나무 그루수의 적정성 유지 등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2시간 이상/년)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지난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산지,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김경수 기자

10월에 열리는 체육행사 '풍성'

전국체전·익산체육회장배 동호인 배구대회 등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10월에도 크고 작은 체육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먼저 7~13일까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도내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753명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 사전경기로 열린 유도와 펜싱, 배드민턴 종목에서 이날 현재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다.

또한 15일 익산에서는 익산시체육회장배 동호인 배구대회가 열리며, 18일에는 고창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고창실내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된다.

22일에는 전주덕진체육공원에서 전북 여성 풋살대회가 열리며, 같은날 순창에서는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가 펼쳐진다.

전북도지사배 풋살페스티벌 대회는 23일 전주에서 전북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는 24일 군산에서 열린다.

또 전북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는 27일 전주에서 열리며,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28~30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전북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와 합기도대회, 당구대회 등도 예정돼 있다. /장은성 기자